

송사리

Asiatic ricefish

| *Oryzias latipes* (Temminck et Schlegel, 1846)



분 포 우리나라의 동해로 흐르는 하천과 낙동강, 남해와 서해 도서지방에 분포한다. 국외에는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형 태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머리부분의 등 쪽은 아래위로 납작한 형태이다. 체고는 머리에서부터 높아졌다가 꼬리 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눈이 크고 아래턱은 윗턱보다 길며 뒷지느러미가 길다. 체색은 회갈색으로 배 쪽은 밝은 색을 띤다. 몸 옆면에는 검은색 점이 있고 대륙 송사리보다 많이 흩어져 있다.



많은 수의 송사리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수면위에서 유영중인 송사리



1) 환경조성

수조 내 환경조성은 바닥에 모래를 깔아주고 수초를 심어주면 좋으며 수질관리를 위한 여과방법은 저면여과 또는 측면여과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속은 가급적 없는 것이 좋으며 수초가 있으면 은신처 역할과 함께 산란장소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수초를 함께 기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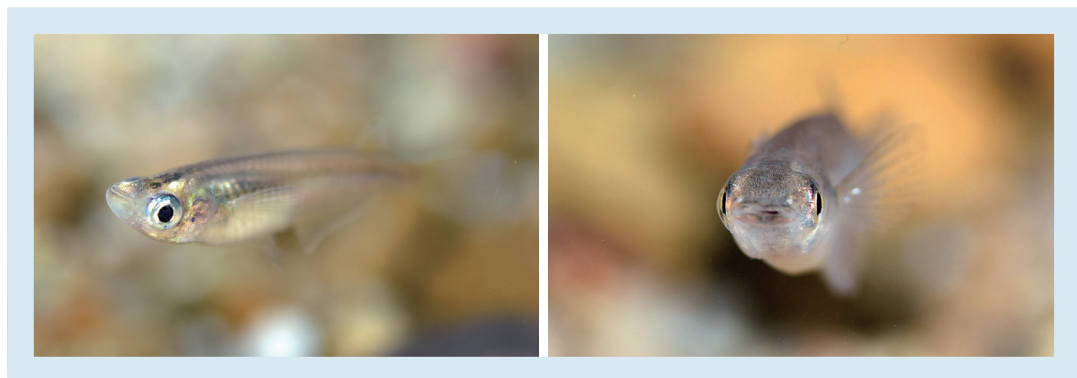
수초 어항의 송사리

2) 먹이주기

먹이주는 수면 위에 뜨는 부상사료를 주는 것이 좋고 물에 쉽게 풀리는 종류가 먹기 좋다. 먹이주기 횟수는 3회/일 정도가 적당하며 적정량을 조금씩 천천히 주는 것이 좋고 사료 먹는 양이 많지 않아 잔여 먹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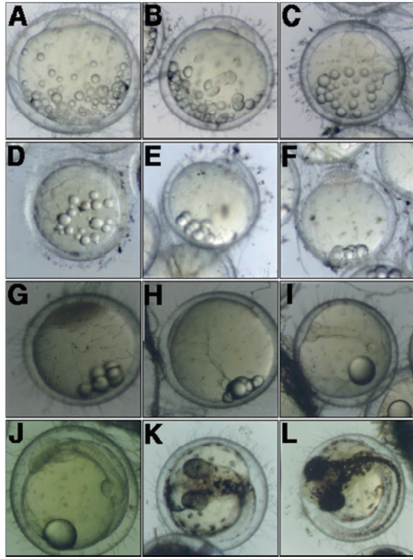
송사리 전용 배합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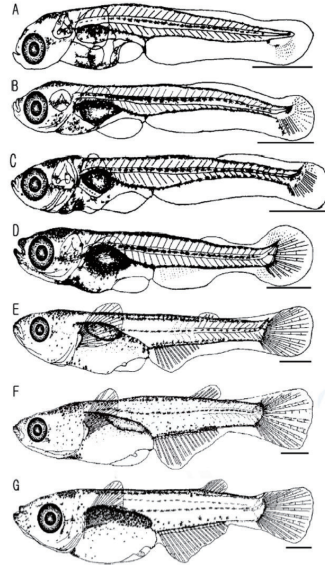
송사리의 정면 모습



송사리의 측면 모습



난발생 과정(Lee et al., 2014)



자치어 형태발달(Lee et al., 2014)

3) 번식방법

송사리 암컷은 포도송이 형태의 알을 산란하게 되는데 알 덩어리를 배지느러미에 붙이고 유영하다가 수초에 부착하는 산란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수정란이 다른 포식자로부터 위협받지 않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보인다. 수조 내에 산란유도를 위해서는 조명, 적정 수온유지를 위한 수중히터, 알붙이기를 위한 수초 또는 산란 어소 등을 넣어주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산란 직후 수정란이 동쪽으로부터 포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주는 것이 좋고 수조 내에서 부화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 은신처로 활용되는 수초가 없으면 포식당하는 경우가 많아 번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정란 관리 방법은 물이 잘 통하는 작은 용기에 수초와 알이 부착된 상태로 넣고 기포발생기를 이용해 조금씩 산소를 공급해주면 부화하게 된다. 부화된 자어는 2일간 난황을 흡수하면서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되며 이후부터는 알테미아 부화유생을 주며 치어기로 성장 후 입 크기에 맞는 작은 알갱이 형태의 사료를 주면 좋다.



송사리와 대륙송사리

송사리와 대륙송사리는 형태적으로 몸이 납작하고 머리의 등 쪽은 아래 위로 납작하다. 체색은 몸 전체가 회갈색을 띠고 배 쪽은 밝은 색을 띤다. 비늘의 뒷부분에는 작은 검은색 점이 있고 몸의 옆면에는 대륙송사리 보다 송사리가 검은색 반점이 많이 흩어져 있고 가슴부위에 나타나는 2개 내외의 검은색 횡대는 송사리 보다 대륙송사리가 뚜렷하지 않다. 분포는 송사리가 동해로 흐르는 하천, 낙동강, 남해 및 서해 도서지방에 분포하며, 대륙송사리는 서해로 흐르는 하천과 인근 도서지방에 분포한다.